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심사평

이 심사평은 각 분야(분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평을 분야별로 모은 것으로 각 분야(분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 문학 분야

○ 문학분야 B분과(개인 창작지원)

<시>

1심에서 120명의 시인들의 시 2,400편이 2심에 올라왔다. 심의위원들은 20편씩 보내온 지원자들의 작품을 2회 이상 읽으면서 심의방법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시에 배분된 52명의 시인을 결정하는 진행상의 어려움은 없었다. 결정해야 하는 수의 2배수가 조금 넘는 작품이 1심에서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올라온 까닭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의 작품들을 제외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의위원 각자가 작품을 정독하면서 겪은 어려움이였다.

2심위원들은 각자가 심의 결정하여 가져온 채점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한 OMR 카드에 표기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시간여 뒤에 OMR 카드 결과가 집계되어 나왔다. 심의위원들은 작품 앞에 지원 시인의 이름이 없는 원고 내용만을 심의하였으며 OMR 카드에 나타난 결과에서도 지원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 심의위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요청한 심의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한 '작품의 수월성' 이외에는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창작 지원 중 시 분야의 심의결과는 다득점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동점자가 나올 경우는 다시 구체적으로 작품을 놓고 토의하기로 하였지만, 최하 평균 87.500점에서 52인의 지원대상 시인이 결정되었다. 동점자는 총점 360점대 즉 평균 90점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비교적 높은 평점으로서 지원한 시인들의 작품 수준이 높았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심의위원들의 채점이 비슷했다는 결과이다. 이 점수대에 22명의 작품이 모여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심의위원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은 작품은 없었다.

52인의 시인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 제외된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출된 무기명의 작품을 읽고 숙고하여 얻어낸 이 결과가 절대가치에 근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심의위원들은 규칙에 의한 공정한 심의를 다했다.

- 심의위원/ 이수익, 노향림, 고희렬, 김혜순

<시조>

본심에 올라온 열 두 시인들의 작품을 놓고 우열을 가리기란 결코 간단치 않았다. 활달한 시어, 탄탄한 시적 구성은 오늘의 시조가 갖는 문학적 위상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비유와 상징 면에서도 현대시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작품 모두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한편에는 마치 유행처럼 몇몇 시인들의 상투적 음보 이탈로 새로운 형식 실험이라기보다는 시조 고유의 정형성마저 훼손시키는, 자유시와의 변별력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단계에까지 와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조에서의 새로움은 형식의 무너뜨림이 아니라 형식의 아름다운 수용임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 시조는 현대시로서의 그 존재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이렇듯 정형의 엄격성은 시조가 마땅히 지녀 할 최고의 가치이자 한국시가 품고 가야 할 마지막 덕목이라는 점에서 깊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우리 시조의 오래된 관습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평이함, 낡은 시어, 틀에 박힌 자수 맞추기와 가독성을 떨어트리는 지나친 실험 의식 등도 마지막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 심의위원/ 이근배, 유재영

<소설>

올해 소설분야 총 응모자 수가 225명 분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일차 심사 통과작은 57명분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것은 이차 심사 대상으로 올려야 하는 2.5배수인 44.2명을 훨씬 능가하는 양이었다. 다른 장르가 대체로 이차 심사 대상의 2.5배수를 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소설분야가 일차 심사 과정에서 대단히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차 심사위원에게로 넘어온 57명 분의 작품은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이 없을 정도로 작품성과 작가의 노고가 돋보여 심사위원들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사위원별 채점에 앞선 논의에서 작품의 경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취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작품의 완성도, 작품에 깃들여있는 작가의 치열한 창작열, 제출된 작품의 양과 고른 질을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편과 단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다만 전체적인 무게를 가늠하는 참조로만 삼기로 하였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적 성격을 고려해 장차 단행본으로 나왔을 경우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등급을 합산하여 살펴본 바, 대략 순서별로 27명 분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것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설 분야에 배당된 전체 지원대상자 24.5명 분과 거의 일치할 하였다. 다른 장르와의 조정 끝에 최종적으로 26명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한명을 예비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러분께 축하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아깝게 탈락한 여러분께는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다.

- 심의위원/ 윤홍길, 송기원, 김민숙, 김영현

<회곡>

계량적으로만 본다면 회곡을 쓰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회곡이 많이 나올 터인데, 금년 문학 분야 8개 장르 중 회곡은 가장 적은 35편이었다. 이 중에서 1심을 거쳐 9편이 남았다. 9편 중 회곡분야로 배정된 4편을 고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런 일이었다.

가족 관계, 정신 분열, 사회 계층간의 문제 등 다양한 소재를 만날 수 있었으며 이처럼 진지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작가들의 세계관을 접하는 것은 세밑에 누리는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었다.

“연극성이나, 문학성이나?”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쪽이 강하면 다른 한 쪽이 약한 경향이 있었다. 회곡 작품을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작품이 무대화되었을 때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연극성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연극성에 기초한 회곡쓰기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앞으로의 ‘회곡 작가’는 ‘연극 작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에는 회곡 분야에 많은 지원자가 있기를 희망하며 연극성 짙은 회곡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 심의위원/ 김치수, 황광수, 김광림, 성민엽

<평론>

평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현재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 과거의 작품들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 문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문학운동 지향의 논의 등등. 그러나 여기에 가치 판단을 적극적으로 작용시키면(이때 우리는 평론이라는 말보다는 비평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느낀다), 진정한 평론 혹은 비평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학연구와의 구별이라든지 단순한 감상과의 구별 같은 범주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평적 주체 세우기라는 쉽지 않은 일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론 혹은 비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편의상 비평적 주체 세우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는데, 이를테면 주관과 객관 사이의 변증법적 통합이라는 식으로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비평 활동에 항상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론 분과의 본심 대상은 모두 11명이었다. 이들 11명을 모아놓고 보면 평론이 할 수 있는 일들 중 많은 것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예심 통과작들이어서 그런지, 이들 대부분이 비평적 주체 세우기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 끌어안기의 성과가 정도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감탄할 만한 정도의 성과는 솔직히 말해 드물었지만, 그러나 그 끌어안기의 자세는 한결같이 열정적이어서 이를 두고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정해진 숫자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다양한 모습의 비평적 열정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심의위원들의 행복이었다. 모두의 건투를 빌 따름이다.

- 심의위원/ 김치수, 황광수, 김광림, 성민엽

<수필>

모두 21명의 지원신청 작품집이 2심에 올라왔다.

작품들을 읽느라고 며칠 밤을 새웠는지 모른다는 푸념과 함께 심사가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로 접어들자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좋은 작품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부터 쏟아내기 시작했다. 많은 작품들이 자연적 사물에

대한 감상, 일상적 경험에 대한 정감어린 이야기, 바른 삶에 대한 교육적인 이야기,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평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특수한 주제에 대한 글들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상식에 속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일반화되어 있는 사고방식들—일상에 침투해 있는 이데올로기—을 의심하거나 뒤집어보려는 노력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수필에 대한 우리의 통념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생활 주변의 일들에 대해 발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수필이라는 통념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안이한 태도는 기존의 장르들이 안고 있는 표현상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자유스러운 글쓰기’에 대한 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수필은 이제 시·소설·희곡·평론 등 기존의 장르들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새로운 감각·발상·사유를 드러내기 위한 글쓰기 형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문학 장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면서 그 존재이유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작품들에는 시가 되기에는 너무 평범한 서정을 담고 있거나 소설이 되기에는 너무 단순해서 콩트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다. 어떠한 장르에 속하든 모든 문학작품들에는 세계와 삶에 대한 그 나름의 특수한 비평적 사유가 깃들여 있어야 한다.

네 사람의 심사위원들은 고심 끝에 다섯 사람의 작품집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원 신청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

- 심의위원/ 김치수, 황광수, 김광림, 성민엽

<아동>

한껏 풍성해진 아동문학 작품에 취했다. 2000년대 들어 아동문학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거듭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무엇보다 양적인 면에서 그렇다. 질적인 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출판시장의 취향이라는 점에서 동화의 팽창은 그렇다 해도 동시의 성장은 의외이면서도 반갑다. 이번 심사에서는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동시 쪽에 상대적인 고평이 이루어져 동화만큼의 지원이 가능했다. 투고된 편편이 고르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지원작 몇 건은 운율이나 비유, 상징 등 형식적인 면에서나 소재의 참신성이나 구체성, 현장성 등 내용적인 면에서 이들은 투고된 그대로 책으로 옮겨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신뢰가 갔다. 특정한 주제나 단일한 제재를 내세워 기획성을 표하게 드러낸 지원작 중에서 몇 건은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흠이 있었으나 새롭고 참신하거나 아니면 전통적

인 의미에서 안정감이 느껴졌다.

동화 부문에서는 발상이 신선한 작품들이 여러 건 눈에 띄었다. 독특한 배경과 이야기를 보여준 판타지 동화부터 사라져가는 전통을 믿음직한 정보와 더불어 구성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방법이 이채로웠다. 아픈 역사를 제재로 한 작품들도 현실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각기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기법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서사 문학으로서의 완성도 면에서는 거의 모든 작품이 얼마간 단점을 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단점이 덜한 작품을 우선하였으며, 이야기 구성력, 인물 개성, 주제 표현력, 문장력 등을 평가 항목에 넣어 판단했다.

지원 대상에 든 여러 편의 작품은 출간되는 그 순간까지 가능한 고치고 다듬어 스스로의 수준을 높여 주어, 기왕에 붙어 닦친 아동문학의 바람이 거침없는 신바람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이 심의자들의 충정어린 바람이다.

- 심의위원/ 박덕규, 황선미

○ 문학분야 C분과(문학일반 지원)

I. 심사 경위 및 총평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33%가 문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문학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는 한편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학 환경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심의위원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과 지원을 신청한 개별 사업 주관단체 및 개인들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류상에 기재된 사실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때때로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 소설, 평론, 희곡, 아동문학 등 세부분야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관련 심의 위원들의 정보를 교환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무엇보다도 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참신한 기

획과 합리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예상 가능한 문학적 성과를 함축하고 있는 사업 주체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단체 및 개인이 명의를 달리하여 여러 분야에 중복 지원을 한 경우 좀더 다양한 사업 주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의를 엄정하게 진행했을 때 가령, 문협과 작가회의, 노장·원로 문인들과 소장·청년 세대 문인들, 지원 수혜단체와 탈락 단체 간의 갈등이나 반목 등 의도하지 않은 편향성이 결과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문학의 다양화에 대한 인식 및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따르거나 인위적인 안배·배려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심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심의위원들은 심사 외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오로지 전년도 실적과 지원신청서 서류상의 기획 및 수행능력으로만 심의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문학 매체를 위협하는 각종 첨단 기술 매체들의 약진과 그로 말미암은 문학의 총체적 위기 국면을 생각할 때 문학적 역량을 확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현 지원 사업의 취지는 다시 거론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좀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주관 단체들 및 개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신한 기획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해당 분야의 지명도 높은 우수단체 및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본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절실합니다. 문학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 유지 및 대대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할 듯합니다.

II. 단위사업별 의견

1. 기관지 발간 지원

일단 각 장르의 대표적인 단체 및 협회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필가협회는 사정상 두 개의 단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지원액에 있어 타 단체와 차등을 두도록 하여 형평을 고려하였습니다. 간혹, 지원 서류상의 사업 계획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업도 없지 않았습니다. 문학 독자들의 증가 및 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한 참신한 기획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원 사업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 체계를 정비하여 다음의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신진예술가 지원

등단 10년 미만의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중견 예술인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작품 소재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무엇보다 신청인의 예술적 기량 및 성장 잠재력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단,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개인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사업 계획서가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작품 소재 개발을 위한 해외 연수가 단순한 유람이나 여행의 차원으로 떨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지원자들이 이 지원 사업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인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작업 계획 및 성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

다양한 단체들이 청소년 문예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창간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해당 문예지의 기획의 우수성과 참신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여부, 문학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 효과, 그리고 과거의 사업 실적에 근거한 신청인의 사업 추진 역량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간지 및 반연간지에서 계간지로 유도하고 훌륭한 사업 실적을 낸 단체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문예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세대를 육성하고 우리 문학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국 문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

창작과 교류의 모체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네트워크와 문화 관광의 핵심 중추로 기능하는 전국 문학관은 창작 집필실 운영과 문학프로그램, 그리고 한국문학관협회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 창작 집필실은 시설 및 복리후생, 서비스의 고하를 살펴본 뒤 만해문학관과

토지문화관 두 곳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그 실제에 있어 계획서 상의 서비스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다음의 심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학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및 문인들과의 네트워크 여부, 사업 계획의 당대적 필요성과 문학적 의의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사업 기획과 참신한 발상이 여럿 눈에 띄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아마추어리즘과 과욕만 느껴지는 사업 역시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기획과 그를 감당할 주체의 역량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 협회는 해당 단체가 소속된 문화관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자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5. 예술 보존·조사연구 지원

문화예술 자료의 기록과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연구와 비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반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체 성원의 친목을 위한 연수성격의 행사까지 포함하여 많은 신청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였습니다. 덕분에 문학적 의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이 필요한 의미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청 사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좀더 참신한 아이템의 기획과 새로운 성원들의 등장을 바라마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6. 문화예술 국제 교류지원(레지던스 포함)

미국 아이오와 국제창작 프로그램의 경우 응모 건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응모자들의 역량 역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외의 국제교류의 경우 특정한 지역, 이를테면 중국이나 연변 쪽 관련 사업 계획 및 지원 요청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영역의 다변화 역시 필요한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7.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 교류

다양한 민족 교류 활동과 재외동포 대상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간 문화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우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당 단체 및 개인의 역량 확인입니다.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해외 문인 단체들의 명목과 실상이 일치하는지 보다 정교한 현황 파악이 시급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외 우수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 심의위원/ 김주연, 이태수, 이하석, 최성각, 방현석, 신수정, 박숙경

□ 시각예술 분야

시각예술분야는 평면, 입체, 매체, 공예·디자인·건축, 학술·평론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의를 하였으며 평면, 입체, 매체, 공예·디자인·건축 부문에서는 지원유형 중 창작파트인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과 '신진예술가지원(성장,데뷔)'의 각 부문별 대상사업에 대해 심사하였고, 학술·평론부문에서는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과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 사업 등 4개 지원유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필요시 1차 서류 심사이후, 지원신청 사업의 예산 규모가 1억원이 넘으며 지원 신청규모가 3천만원이 넘는 사업(지원안내책자에 제시된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한 사업)에 대해 실제적인 사업 추진, 내용 등을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평면(한국화, 서예, 서양화, 판화) 부문

전체적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수준이 비교적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화의 경우 비교적 새로운 형식실험과 그 내용에 있어 발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었고, 판화의 경우도 지원숫자는 적었으나 형식적인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서예의 경우 지원자 대부분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실험정신이 충만한 작가지원이 저조한 아쉬움을 남겼다. 양화의 경우 충분한 회화적 진보를 보이는 작품이 있었던 반면, 창작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한 작품으로 양분됨을 보여주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형식적인 그룹전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었다. 전체 지원예산상 응모자의 28%정도밖에 지원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좀 더 사전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느꼈다.

입체(조각, 설치) 부문

2007년도 지원건수는 예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는데, 이는 아마도 처음부터 실제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한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가와 작품들이 많아 심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않았다. 신진 성장 부문과 예술창작 부문에서의 경향이 치열했던 것에 비해보면, 신진 데뷔 부문에선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작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간혹 조각과 설치를 아우르는 범주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작업 자체의 완성도와 충실도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또한 기획력이 뚜렷한 기획전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었지만, 한정된 지원 예산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가급적 그룹전시를 지양하고 개인전 형식의 전시를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매체(사진, 영상, 미디어, 종합) 부문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매체예술 부문의 심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는 주어진 응모 사업이 예술적으로 현재의 미술에 기여하는 바나 그 질적 수준이 어떠한가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기여나 수준의 창출을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도모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지원에 있어 최대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발휘하되 그 가운데서 최대한의 형평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심사와 선정에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흥미로운 사업들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액의 배분 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는 순간도 있었다. 결국 다소 중점적인 기준의 순위에 따라 평가에 있어 차별화를 하였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전통, 파급효과에 있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모호함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적 변화의 조건과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기획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두 번째는 사업의 취지와 실행방식이 적절한가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행적으로 제시되어오던 방식, 즉 이런 식으로 응모내용을 꾸

미면 되겠지, 라는 방식으로 기획안을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업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들 간의 질적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평가에 있어 이러한 도식성은 금방 문제점을 도출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실제 사업의 성취 가능도와 지원금액의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청하거나 사업의 내용과 예상 결과치가 평가기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지원에 어려움을 제기한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문예진흥기금은 사업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발전을 도출해내는데 이용되는 것이 개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의 사업들이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심사와 선정은 이러한 사실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공예, 디자인, 건축 부문

공예·디자인·건축분야에서는 단체전에 6개 그룹, 개인전에 2명에 지원금 결정이 되었다. 건축에서는 (사)한국건축가협회를 포함 2개 단체에 45%의 금액을 배정하였고, 공예에는 금속공예, 유리공예 부분에 2개 단체, 디자인에서는 대한산업미술가협회와 공공디자인분야에서 각각 지원을 받게 되어 분야별 적정한 배정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다. 지원 사업 중 기획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에 접근한 단체와 전통기법을 현대화하여 한국적 정체성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작가의 전시가 눈에 띄었다. 건축분야에 응모한 5개 기획안은 지원금 수혜 건축단체가 제안한 2개의 프로그램과 개인과 그룹전의 형식으로 제안된 3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이는 질적으로 높은 기획안의 제시가 전제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지원금 수혜가 원활치 못할 것이라는 예표로 받아들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건축가와 여타 장르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도시의 일상성 발견에 주목한 프로그램으로서 대중적 접근에 무게를 둔 평가를 하였다. 신진예술가지원의 경우 데뷔하는 젊은 세대가 많고 그들이 좋은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창작문화에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데뷔프로그램에 지원자가 적은 반면 몇 명의 탁월한 지원자 때문에 심사자로서 많은 힘을 얻었다.

학술·평론 부문

올해 기금지원 심의는 일종의 책임심의제와 같이 운영되었다. 예술보존·국제교류분야 심의의 경우 5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최종 당선사업과 지원금액까지 결정하였으며 책임심의의 취지를 보다 잘 살려보고자 심층면접

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지원신청 사업의 예산 규모가 1억원이 넘으며 지원 신청규모가 3천만원이 넘는 신청사업 중 1차 심의를 통과하여 지원이 확정된 경우, 그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해 지원신청자에게 직접 사업에 대한 질문과 검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심의는 2일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 원칙, 방식,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1차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층면접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안을 따랐으며, 그 외 사안은 회의 및 개별 심사위원의 판단과 평가를 존중하였다.

심사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존 교류 분야의 심의는 크게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예술보존조사연구 부문과 국제교류 및 해외레지던스 참가, 남북교류 등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예술보존조사연구 분야는 90건의 지원신청이 있었고 이 중 27건에 대해 지원결정이 내려졌다. 보존조사연구 분야는 지난해(87건)와 비슷한 신청건수였지만 전년대비 30%라는 가장 큰 비율의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 2007년 시각예술분야 공모사업 지원 기금이 전체적으로 5천5백만원 증액에 그친 것도 내년도 지원사업의 어려움을 드러냈지만 (문예진흥기금 전체로는 약 4억원이 감액되었다.) 예술보존 분야의 지원이 크게 감액되었다. 예술보존 부문이 학술진흥재단 등의 다른 지원 방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점은 창작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일진데, 기초예술 중에서 가장 방치되는 영역은 창작이 아닌 이론인 것이다. 이 분야의 심사는 지원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인의 이전 사업 검토, 해당사업의 학술적 의의 등을 고려하였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나 개인화집 제작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학술적 의의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지원금액이 대체로 소액이었음은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의 결과다.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에는 161건의 신청 사업 중 68건에 대한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그 중 7건에 대해 심층면접이 별도로 이루어졌다. 대개 해외전시 개최지원을 신청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경우 전시 장소의 성격 (공공기관, 비영리, 상업공간)과 영향력, 국제미술계에서의 인지도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되었다. 사업장소가 해외인 경우는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최측의 결과보고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업 주체의 실행력과 사업의 실현성 등이 참작되었다. 국내 행사의 경우도 사업주체의 사업 실행력이나 사업의 의의는 심사의 높은 관심사이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 단체의 과잉중복 신청이 종종 드러남에 따라 그것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숙고되었다.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존조사, 교류지원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중복 지원 현황

도 다시 검토하였고 그 내용은 심사나 금액 결정에 감안하였다.

해외 레지던스 신청은 22건 중 7건을 선정하였다. 아쉽게 이 사업도 예산이 줄어든 경우이다.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작가의 포트폴리오 등이 심사에 반영되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액이 결정되었다. 레지던스 지원은 시각예술분야에서 활성화된 사례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더욱 성장하는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 및 해외 교류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소수의 지원건수였으며 사업의 의의를 고려하였다. 모든 사업에 모쪼록 풍요로운 문화적 예술적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 연극 분야

2007년도 지원심의회는 일곱 명의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505건의 방대한 지원 신청을 검토하느라 고달프기도 하였지만, 전체의 경향을 점검하면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공평한 지원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서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 사업이 지속되었고, 이와 비례하여 그 외의 단체들에게는 가급적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진예술가지원은 데뷔프로그램과 성장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젊은 예술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원 제도에 있어서 집중화와 기회 분산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었고, 각 특성이 지닌 결함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심의위원들은 모두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1단계에선 미리 받은 심의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2단계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 심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에 입각하여 505건의 지원신청의 적격성에 대한 논의와 개별평가를 통해 예비심사를 거쳤다. 3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하였고 전체적인 지원제도의 맥락 속에서 예비심사의 단계를 거친 작품들을 재검토하였고, 4단계에서 최종 평가를 하였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적 역량
2. 사업계획의 성실성 및 타당성
3. 해당 분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신청인의 사업추진능력 및 성장 잠재력

그 외에 사업 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심의기준이 추가되었으며, 동점이 나왔을 경우엔 창작 우선, 지역 소재의 신청 사업 우선 고려, 직전년도 미지원 단체를 우선 지원하면서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의 경우 역시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1. 창작 지원

* 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총 295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창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창작극/번역극/재공연/어린이극/마임/민족극/지역연극/기획 공연 및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지원하여 지원제도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자 하였으며, 합리적 결과물 도출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함께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성장 잠재력을 같이 고려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가급적 중복 지원은 배제하고자 노력하였고, 2006/2007년도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사업에 선정된 단체 역시 배제하였다.

*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심의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가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의 지원제도를 통해 한국 연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어렵게 나왔고, 이 사업이 이를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도에 신설되어 아직 초기 단계인지라 이 제도가 안정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정확하고도 엄격한 전망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따르게 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총 37단체의 지원서류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면서 예비 후보를 선발하여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이 제도의 적합한 기준에 대하여 오랫동안 격론을 벌인 뒤에 최종 단체를 선발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예술적 완성도 및 과거의 창작경력/인적 구성/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 향후 3년간의 계획/ 전체 연극에 대한 기여도와 앞으로의 파급 효과 등을 중요 기준으로 고려하였고, 덧붙여 이 제도가 뛰어난 한 개인 보다는 공연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총 4팀이 선발되었는데 극단 골목길, 극단 백수광부, 극단 사다리, 극단 우금치(이상 가나다 순)가 그 주인공들이다. 극단 골목길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연극인인 박근형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들의 앙상블, 전세대의 연극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학과 무대언어, 지난 몇 년간의 열정적인 행보와 노력들이 인정받았다. 연출가 이성열이 대표로 활동하는 백수광부는 꾸준한 활동과 성장력, 정공법과 해체를 넘나들며 미학적 패러다임을 넓혀온 탐구적 태도, 최근에 보여준 미적 완성도가 높게 평가받았다. 극단 사다리는 어린이 연극이 불모지대인 과거부터 기념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극장까지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성이 함께 인정되었다. 극단 우금치는 민족극 계열의 단체 중 최근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구어낸 단체이다. 지나치게 공연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민족극 본연의 색채가 흐려지고 대중화 되어간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우금치 단원들의 내적 성숙과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심의위원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4팀은 소장연극인들이 주축이 된 단체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 연극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며, 안정감 있는 지원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끝으로 최종 인터뷰 심사 후보까지 올라왔으나 심의과정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생산하는 극단 물리를 탈락시켰고,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연출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 보다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은 이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인지라 그 취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이 안정된 궤도에 접어들고 난 연후에 대상과 규정이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제도의 망 밖으로 대어가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점검해주길 바라며, 아깝게 탈락된 물리와 여타의 후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선정된 4팀에게 각별한 축하와 발전을 부탁드린다.

*신진예술가 지원

올해 지원사업의 또 한 가지 특성은 신진예술가지원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데뷔 프로그램과 성장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젊은 예술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그것인데, 두 분야에서 총 58편의 신청이 들어왔고 심의과정에서는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참신성과 독창성/성장 잠재력 및 사업 수행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 연극의 미래를 타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나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신진 예술가에 대한 자격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는지 학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대학생들의 신청부터 한 단체가 이름만 바꾸어 여러 개 중복 지원한 것도 눈에 띄어, 가급적 그런 신청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비록 적은 액수로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준비단계를 거친 예술가들에게 가급적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을 심의과정에서의 원칙으로 삼았다.

옥석을 구분하기 위하여 서류 심사만이 아니라 인터뷰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심의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제도가 좀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젊은 연극인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사후지원제도로 바뀌어나가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과도하게 엄격한 신청 제한도 불편한 지점으로 논의되었다. 데뷔와 성장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었으면서도,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틀어 35세 이하의 신진 예술가들이 한 번 밖에는 지원을 못 받도록 제한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데뷔한 예술가들이 성장프로그램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제한선이 좀더 완화되길 희망한다.

2. 예술 보존조사 연구지원 및 국제 사업

창작분야에 비해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할당된 액수가 적어 지원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모두 4개의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문화예술국제교류/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가 여기에 속한다.

소수에게만 지원의 기회가 제공되므로 지원의 기준은 연극에 대한 공헌도가 큰 지원프로그램을 우선하였고 그 외 예술적 역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능력을 함께 고려하였다.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것은 주목을 끌만한 혁신적이고 문제적인 프로그램들도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같은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고

국제 교류의 경우도 지나치게 중국이나 아시아처럼 가까운 나라와의 교류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프로그램이 유목민처럼 더 확장되고 다양해지길 희망한다.

탈락된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선정되신 분들께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무용 분야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무용분야 지원예산은 총 1,905,000,000원으로 전년도의 1,962,000,000원에 비해 소폭 삭감된 규모였다. 지원신청건수도 작년의 433건에 비해 올해는 349건이었다. 심의위원은 예술위원회에서 각 심의위원에게 발송한 자료(신청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심의에 임했다.

지원심의는 ①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예산액 750,000,000원) ②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예산액 360,000,000원) ③신진예술가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④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예산액 120,000,000원) ⑤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예산액 420,000,000원) ⑥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예산액 15,000,000원) ⑦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기반 구축(예산액 40,000,000원) 등 7개 유형으로 나누어 행해졌다. 심의는 양일간(2006년 12월 6일-1차, 12월 16일-2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1차 심의에서는 심의위원간 종합 토론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신청자를 가리는 여과과정을 거쳐, 심의위원의 개별적인 채점을 집계하여 우선순위를 매김했다.

심의기준은 신청자의 사업내용이 의례적인 행사성에 치우쳐 있는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가, 기존 작품의 연례적인 재공연에 치우쳐 있는가,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는가, 현재의 성취도에 비해 앞으로 더욱 발전할 비전이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주요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2차 심의는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과 신진예술가 지원 등 2개 부문에서는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신진예술가 지원부문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신청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심의의 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다음 1차 심의에서 우선순위로 가려진 신청자를 총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규모, 성과

에 대한 기대치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을 다소 조정했다. 탈락된 신청자 중에는 의욕적으로 활동하거나 앞날이 기대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한편 유사한 프로그램을 여러 유형에 걸쳐 중복 신청하여 요행을 바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신청자도 간혹 있어, 향후 지원신청안내 시 중복신청 제한 등 효율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유형별 심의기준 적용 등 주요 진행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1차적으로 6개 단체를 후보로 올려,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다른 부문과 원칙적으로 같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 ① 행사성 공연에 주력해 온 단체보다는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로 내일을 창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단체
- ② 국지적인 한계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
- ③ 단체 운영의 충실성
- ④ 현재의 위상보다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더욱 큰 단체

선정단체별로 타 단체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 요소로 두각을 나타낸 점을 언급하면,

- 가. 손인영나우무용단은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공연활동을 지속해오면서 예술적 성취도를 높이려는 정열이 높게 평가되었다.
- 나. 리을춤연구원은 우리 춤의 전통을 깊이 유지하면서도 언제나 공연내용이 참신하여 우리 무용계에 활력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다. 트러스트무용단은 고정급여를 받는 단원을 확보하는 등 전문단체로서의 기반이 확고하고, 운영의 충실성이 무용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라. SEO발레단은 국제적으로 뚜렷한 위상이 구축되지 않은 공연단체로서는 좀처럼 참여하기 어려운 아비뇽축제에서 호평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이미 그 위상을 드높였고, 우리 무용의 세계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신진예술가 지원

아직은 그 존재가 미미하다 해도 신진예술가야말로 앞으로 우리 무용계를 이끌어갈 새싹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분야보다도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진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에 임했다. 신청자는 해외의 축제, 특정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는 프로그램과 국내에서의 공연개최 등으로 대별되는데, 공연 프로그램에 좀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약간씩 상향 조정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었으며, 그런 신진들이 더욱 성장하는 데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상당한 몫을 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현상은 인문학적 교육의 기반이 신진무용가들에게 취약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반교육의 빈혈상태와 허기를 메꾸는 데는 현재의 지원시스템으로는 별로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분야는 자료의 구축, 기록의 보존, 연구자료의 발간과 보급, 전문지 발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예술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본 사업취지와 부합성, 무용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연례적인 행사성 연구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전문지 발간사업에 관련된 지원액은 단계적으로 자생력을 길러가야 한다는 점에서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신청자가 이 유형의 지원을 받는데 적절한지의 여부가 심의의 주요 기준이 되었다. 신청자 중에는 이미 공연된 작품의 재공연 프로젝트도 신청한 사례도 있었지만, 기성작품의 재공연보다는 새로운 창작에 더욱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미 검증된 신청단체(인) 및 사업 참가자의 예술적 기량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두고 검토한 부분이었다.

- 국제교류 지원분야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기반 구축 등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한 국제교류 지원분야 심의

에서는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과 사업내용의 충실성, 그 성과에 대한 기대치라는 심의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도 남미, 아프리카 등 우리 무용이 별로 소개되지 않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다.

□ 음악 분야

2006년도 12월2일, 12월5일 양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음악분야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회가 동숭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건물에서 열렸다. 이번 심의회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총 9명이다.

지원심사위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로부터 각 지원 단체 및 개인들의 지원신청서류들을 사전에 전해 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271건,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24건, ‘신진예술가 지원’ 45건(신진예술가 성장프로그램 지원 35건, 신진예술가 데뷔 프로그램 10건),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45건,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75건,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 사업’ 13건 등 총 모두 6가지 사업유형별 심의회가 이루어졌다. 심의회 회의의 진행을 맡은 위원장은 심의회위원들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선출된 유영재 위원이었다.

심의회 앞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로부터 2007년도 지원심의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이 있었고 여기서는 심의회기준, 평가 및 채점 방식, 심의회 시 주요 고려사항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신청 단체들 및 개인들의 사업취지와 수행 능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일 동안의 심의회에서는 각 위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었고 전공별 소양과 식견도 충분히 발현되었다.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신청 단체 및 개인의 사업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위원들은 각자 개별채점을 통해

OMR카드에 자신들이 부여한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그 과정은 5개 등급(A/B/C/D/E등급)으로 차등화된 OMR 카드에 채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각 지원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평가는 전산화되었다. 그렇게 점수화된 결과를 토대로 2차 회의에서는 2개 사업(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신진예술가 지원)에 대해서 면접이 실시되었고, 대상 단체의 최종 선정과 지원액이 결정되었다.

12월 5일에 실시된 면접심의회는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과 '신진예술가 지원'의 2가지 사업유형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 2가지 사업유형에서 12월 2일의 1차 과정을 통과한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지원신청서에 명시한 사업목표에 대한 수행능력과 음악예술 주최로서의 발전적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면접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전에 비해 음악분야의 신청건수는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음악분야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단체 및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지원금 배분에 있어서는 연주 주최들의 목적과 규모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의 선정이 가장 어려웠다. 소수의 단체만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각 단체들의 기여도와 발전가능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다. 지원 단체의 수에 비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의 논의와 면접이 이루어진 심사가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이었다고 하겠다.

이번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매해 평가를 통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악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음악분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신청이 늘어났고, 음악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타 장르보다 지원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있는 현실이어서 음악인들의 노고와 요구를 수용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혜를 받게 된 단체 및 개인들은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목표를 충분히 인식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된 단체와 개인들이 성실하게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국 음악문화의 바탕과 비전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전통예술 분야

○ 전통예술분야 A분과(전통예술일반 지원)

이번 2007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전통음악 심사에서 모든 심사위원들의 협의 하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첫 번째 원칙은 좀 더 많은 전통음악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았던 단체와 개인보다는 이전에 기금 수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단체나 개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음악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꾸준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체나 개인 중에서 계속지원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의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 지원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원칙은 이미 한국 전통음악계의 대중스타로 자리 잡아 조금은 자생력이 있다고 사료되는 단체나 개인보다는 그렇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중적, 상업적 흥행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장르의 전통예술 공연과 창작분야에 우선 지원하기로 모든 심의위원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심의에 임하였다.

전통춤의 창작 및 표현 활동은 단체 및 개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회성 성격이 짙거나 개인 차원의 실적에 맴도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통춤을 오늘의 자산으로 현재화하고 궁극적으로 예술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다수 필요한 반면에 창의력 있는 기획 역량을 발휘한 신청사업이 적어 아쉬움이 컸다. 우리 예술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통춤의 국제 교류가 권장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의 신청이 미진하여 관련 사업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전통춤을 재현(복원 포함)하는 작업과 전통춤을 활용하는 작업 가운데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의 행사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충실한 행사를 지

향하는 신청 사업을 우선 주목하였다. 기존의 행사라 하더라도 기금의 활용도가 높고 해당 지역에서 춤의 맥을 잇고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 온 행사도 비중 높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남북 및 해외와의 교류 사업에서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 한국 예술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국제적 교류 기반 구축 효과가 고려되었다.

예술보존조사연구 사업은 과거의 전통 유산과 작업을 충실하게 재현 보존하는 사업 가운데 무용 분야에서 가치와 희소성을 가진 사업, 기금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존 유산과 자료의 해석에 치중하는 사업은 나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보존 및 전파가 시급한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통공예 분야가 예술 전반은 물론, 전통예술 영역 내에서조차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신청 건수만 하더라도 전체 지원사업의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 자체가 전통공예 영역의 현주소를 암묵적으로 웅변하고 있어 안타깝다. 창작활동은 물론 보존연구와 국제교류 사업 등은 더욱 그 건수가 미미하여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과 선정기준은 원천적으로 창작의욕을 북돋고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생각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가급적 많은 단체를 지원하여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사업보다는 현재의 역량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지닌 참신한 발상과 창의적 의욕이 엿보이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한 단체나 개인에게 하나의 사업이 지원됨으로서 그나마도 적은 수혜대상이 최대한 폭넓게 배려될 수 있게 중복수혜를 가급적 피하고자 하였다.

지금 여기서 살아 생동하는 공예문화의 기반구축에 일조하려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새해에는 여러 영역에 걸쳐 젊고 의욕적인 개인과 단체들이 창조적인 기획력을 발휘하여 다채롭고 균형있는 사업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한다.

○ 전통예술 분야 B분과(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신진예술가 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2007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에는 총 31개 단체가 신청했다.

신청한 31개 단체 중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단체도 있었고, 실험적 음악 단

제도 있었으며, 국악 관현악단과 실내악단도 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가 있는 반면 이 사업을 겨냥해 급조된 듯한 인상을 주는 단체도 있었다.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는 예술적 역량과 성장 잠재력, 공연 프로그램의 예술적 완성도, 연주 단체 운영 전략의 충실도 등 심사 기준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준이 미흡하거나 역량 및 잠재력이 떨어지는 단체를 먼저 거론하는 네거티브(negative) 토론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가야금양상블 사계, 정가악회, 해금 플러스, 사물놀이 한울림, 바이날로그, 퓨전국악그룹 The 林, 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세종국악관현악단 등 8개 단체가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민과 세종등 국악 관현악단 두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즉 관현악단 두 팀이 당장에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지원해줄만하다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일단 2차 인터뷰 심사에는 올려놓기로 하였다. 또한 바이날로그와 The 林의 경우도 모두 퓨전 그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팀만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술적 완성도와 향후 가능성의 측면에서 두 팀 모두 일단 인터뷰를 해보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차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한 단체들에 대한 심층적 파악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사물놀이 한울림과 해금 플러스 그리고 정가악회와 가야금 양상블 사계가 지원 단체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추천 의견은 거의 이 4개 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이 4개 단체를 최종 지원 대상단체로 선정하였다.

바이날로그와 The 林의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단체임에는 공감했으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이 상대적 감점 요소로 작용되었다.

전반적으로 2007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심사는, 심사위원들끼리의 의견 마찰은 별로 없는 편이었으며, 비교적 의견 접근이 잘 이루어진 편이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우수 단체가 일치하고 있었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우수 단체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 중에서는 눈에 띄는 우수 단체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2차 인터뷰까지 응해주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은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이고 알찬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매진해 주기 바란다.

<신진예술가 지원>

2007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에는 총 54명이 지원했으며 그 중 20명이 인터뷰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 서류 심사는 기존에 활동을 시작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성장 프로그램과 완전한 신진에게 지원하는 데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예술적 기량 및 성장 잠재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예술적 성취도 등의 심사기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심사는 심사 기준에 의거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예술가들을 심사위원들이 추천하여 동의를 얻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른 지원프로그램과 달리 신진예술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예술가에 대한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술가부터 걸러내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는 심사에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으로는, 이것이 물론 만 35세 이하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인 점은 맞지만 이미 기존의 연주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신진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자격 기준에 저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미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 성장 프로그램에서는 11명, 데뷔 프로그램에서는 9명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독특했던 것은 김성주의 경우 전문 연주자가 아닌 기획자이지만 참신한 연주회 프로그램의 기획이 돋보였고, 홍현수 같은 경우는 특히 정가(正歌) 한바탕을 오롯이 연주하겠다는 뜻심이 대단했으며, 전통 공예 부분의 지희승 같은 경우는 전통 책(冊) 장정(裝幀)의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열정과 독창성이 돋보였다. 음악의 경우, 악기(樂器)간의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예술적 지향 점과 능력 등을 심층적으로 가늠하고자 하였다. 각 심사위원들이 10명씩 추천하여 다수의 추천을 받은 연주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탈락한 경우를 보면 지원서가 다소 충실치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인터뷰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자신의 기량과 연주 계획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신진 예술가의 공연이라기보다는 이벤트적 공연이 아닌가 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

지 못한 아쉬운 경우도 있었다.

2차 심사 때는 특히 대상자의 역량과 프로그램 계획의 참신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데, 특히 이번의 경우 많은 연주자들이 퓨전 음악이나 대중적인 음악을 지향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신진다운 도전과 실험 정신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 해에는 젊음과 패기가 더욱 살아있는 사업 계획이 많이 제출되었으면 한다.

□ 다원예술 분야

○ 다원예술 분야 A분과(다원예술 일반, 신진예술가 지원)

1. 2007년도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일반부문이고, 두 번째는 신진예술가 부문이다. 일반 부문에는 총 305건이, 신진예술가성장 프로그램 부문에는 총 20건이 신청되었다. 일반 부분의 지원건수는 2006년도의 342건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2007년도 다원예술분야의 사업이 새장르공공예술프로젝트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2. 지금까지 다원예술지원이 특정한 분야에 속할 수 없는 장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심의에 응모한 지원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장르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는 다종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성찰하고,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다원예술이라 함은 여러 장르의 물리적이고 단순한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깊은 성찰과 고뇌의 산물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미술, 사진, 무용, 미디어를 복합이용한 창조작업, 다른 장르와의 결합, 만화 등이 이번에 신청한 다원예술 분야의 구체적 내용들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장르 그 자체로 머물기 보다는 장르의 외벽을 뚫고 나와 형식적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예컨대 작가가 스스로 사진을 찍어 전시하는 것이 단원적 예술활동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찍은 이들이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기록하는 것은 다원적 예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진은 삶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획득, 변형, 보존 그리고 표현하는 매체로서 확대된다. 다원예술은 이렇게 장

르의 기능을 확산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만화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만화는 어둔 지하 공간에서 나와 이라크 전쟁터를 재료공간으로 삼는다. 만화가 오늘의 삶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가벼운 만화가 무거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군하면서 사각형 공간 안에 담는다. 여기서도 삶은 만화의 형식 안으로 접혀 들어가 새로운 모습을 지니게 된다. 다윈은 이렇게 하나의 시선을 복잡한 시선으로 만들어 삶의 두께를 더 한창 늘려놓는다. 과거의 유형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서커스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새로운 유형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이번 다윈예술지원 사업이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을 포함하다보니, 신진 예술가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요구되었다. 과연 누가 신진 예술가이고, 어떤 것이 신진 예술가들의 데뷔 작품인가, 그것이 앞으로 주류 예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신진 예술가라는 영역은 처음 작품을 발표하는 이들의 집단이 아니라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이들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진 예술가들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특히 몇몇 선정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영역이 아닌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 예컨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원사업의 공공성, 공적 지원금이 지니는 공공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누구를 위한 예술작업인가하는 정체성 논의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오늘날 젊은 신진 예술가들의 작업 영역은 탈영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이라는 영토적 의미를 넘어 지금, 여기의 삶이라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영역에서 예술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 역시 오늘날 다윈예술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4. 아무래도 이런 점은 다시금 덧붙여야겠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예술 창조에 있어서 토대일 터이다. 지원사업은 공공지원금으로 하는 것이다. 예술은 스스로 좋아서 선택하고, 제 삶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고한 품위와 함께 누리고 사는 예술가 본연의 자유 활동의 산물이다. 여기에 공공지원금이 가세한다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최소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예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은 다윈예술에 지원한 모든 작가와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사후평가

는 그 다음의 문제일 따름이다.

○ 다원예술 분야 B분과(새장르공공예술프로젝트 지원)

다원예술분야의 새장르공공예술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이다.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의 안내문에 따르면,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은 (1)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 (2)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 (3) 특정 장소나 사안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예술 프로젝트 (4) 특정 공간을 활성화 하는 예술 프로젝트와 같은 예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이 명칭 상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에 기원을 두고 있기는 하나 거리공연 등 공연예술 분야도 함께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내용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을 사업목적, 사업추진방식, 사업장소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사업목적에 있어서 공공성이 분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수자의 문화권 증진, 특정공간의 활성화, 공론의 장 형성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2)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보장이다. 시민참여는 시민을 수동적인 관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창작자로 보고 창작과정에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증진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는가를 중요하게 보았다. (3) 사업장소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예술공간들인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아닌 다른 장소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시각예술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 경험, 발전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건수를 늘리기 보다는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142건의 지원신청사업에 대해서류심사를 거쳐 21건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3건을 선정하게 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차후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분야 심의와 관련하여 몇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1페이지 정도의 사업소개 자료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최소한 인터뷰 과정에서는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나 추가적인 사업설명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 심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기를 건의한다.

□ 문화일반 분야

○ 심의대상 사업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 지원

올해 지원사업들의 내용 중 우선 심의를 한 것은 신청 영역과 영역별 목표가 적합하냐의 문제였다. 문화일반이라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이라는 개념이 지원자에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보존조사연구의 경우, 어느 장르에도 들어갈 수 없으면서 공공성이 강하거나, 발간 후 기초적 기여가 큰 것이 우선시되었다. 상대적으로 연례적 지원대상이었던 사업은 점차 지원 규모를 줄이고, 학술진흥재단이 대폭 확대한 부분들은 문예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영역의 광범위함을 활용해 여러 영역으로 지원을 분산시킨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고려를 했다.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부분은 교류 주체의 사업 수행능력, 신뢰도를 중시했고 교류의 내용, 교류의 파급효과가 고려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다양성과 참여주체의 다양함이 확보되었다. 최근 복식과 패션이 들어갈 영역이 적당하지 않았는데 문화일반이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아닌 경우, 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의 그간의 활동 경력 및 배경 서술이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 부분 지원자들의 해외 출장 비용 등의 신청은 다소 과다했고 지원신청 내역을 추상적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한편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 지원의 경우, 정치적 변화에 지장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실속있는 교류를 중시했다. 따라서 가시적인

교류의 성과물이 보이는 것을 중시했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놓는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일부 위원들이 향후 다원예술 영역과 문화일반 영역의 범위 조정을 요청하였다. 차후 심의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